

김옥임 교수가 쓰는 지족의 경제학 <24>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정책 공조로 최악의 경기침체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듯하다. 일본 노무라증권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1.0%에서 내년 3.9%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연평균 실질성장률이 8%대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20년간 5배 이상의 경제 규모로 성장하게 된다. 20년 후, 세계 전체의 자원에너지 공급이나 지구환경의 오염, 파괴가 어찌될 것인가. 그 비극적 상황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글로벌시대 한 나라의 삶의 질은 주변국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예컨대, 중국은 세계 석탄의 40% 이상을 소비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은미세먼지 중독 물질이 많이 발생한다. 앞으로 세계 3대 수은미세먼지 오염지역은 서유럽 및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 양자강유역에 큰 홍수가 나면 많은 강물이 서해로 흘러들어 염도가 낮아짐으로써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초래된다. 이는 한반도의 기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3년 사회건강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사회적 건강은 1980년대에는 나라경제가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했으며, 1999년에는 20년 전의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다. 피터 드러커가 지적했듯이 한국인들은 불과 3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됐다. 그런데 한국인의 삶의 질이 경제성장의 수준만큼 빠르게 높아졌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

삶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흔히 1인당 GDP(국내총생산)라고 한다. 그러나 OECD는 <성장

을 향해>라는 보고서에서 웰빙(well-being)의 '가장 덜 불완전한 지표'가 바로 1인당 GDP라고 했다. 실제로 삶의 질을 나타내는 경제 복지지표로서 1인당 GDP보다 1인당 GNI(국민총소득)를 증시한다. GNI는 GDP에서 우리의 생산요소(노동)가 외국에서 받는 소득(국외수취요소소득)에서 국내의 외국요소에 지불하는 소득(국외지급요소소득)을 뺀 것이다. 따라서 GDP는 GNI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 평균 복지수준을 알려면 이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GNI를 보아야 한다. GNI가 빨리 증가하더라도 인구가 더 빨리 증가하면 1인당 GNI는 감소한다. 그리고 GNI가 감소하더라도 인구가 더 빨리 감소하면 1인당 GNI는 오히려 증가한다. 그러므로 국민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복지수준을 알려면 양자를 다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GDP로 표시되는 성장과 복지수준은 겉치레의 풍요로움이다.

GDP 산정의 구체적 예를 들어보자. 도로에서 두 대의 자동차가 달리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자. 구조용 헬리콥터, 의사, 간호사, 해체서비스, 차의 수리나 새 차의 구입, 법정투쟁, 상해자 간병, 소액의 손실보상, 보철대리점의 개입, 신문기사, 가보수의 정리, 이런 것들은 모두 직접적 경제활동으로 간주되어 지불이 필요하다. 이리하여 가령 사고 당사자의 생활수준은 개선되지 않은 채 큰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풍요로움' 즉, GDP는 증대한다. 교통사고는 상기한 바와 같은 다면적인 지불과 수요를 야기하므로 GDP를 증대시켜 겉치레의 풍요로움을 증가시키게 되지만, 사고 당사자는 불행에

물질적 풍요가 '삶의 행복' 기준일 순 없어

성장지상주의에 얽매이지 않는 행복한 국가 '부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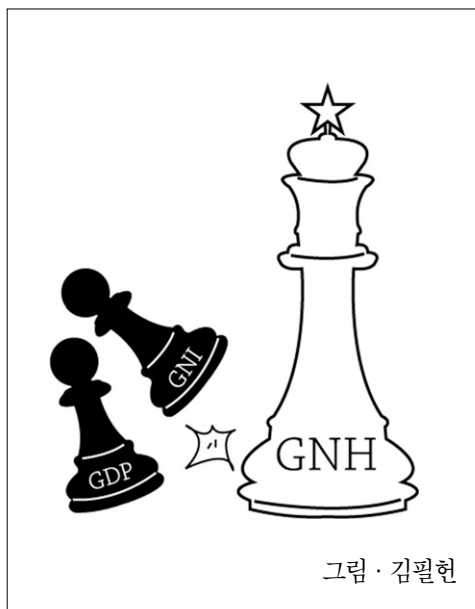


그림 · 김필현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진짜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지표란 무엇인가? 그런 지표로 측정했을 때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과연 어디일까? 최근까지 절대군주제에서 마침내 최근(2008년)에 민주정치제(왕정)로 이행한 '부탄(Bhutan)'을 실험해 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탄에는 왕실과 반동적인 민중이 있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결과일 거라고 속단하기 쉬운데, 사실은 전혀 다르다. 오히려 세상 돌아가는 흐름

에 개명한 왕실이 솔선해서 국민들을 설득하여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민주체제로 이행한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왕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90%는 정치의 민주화에 반대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이 자기들에게 하심(下心)하는 국왕을 신뢰하고 경애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탄왕실은 그런 많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왕주도로 입헌군주제로 이행했다.

부탄의 국민들은 왜 굳이 시장경제 원리나 서구형 민주주의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는 생활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1972년, 당시의 국왕이 '국민의 행복은 결코 물질적 경제성장만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GDP의 추구보다는 GNH(국민총행복량=Gross National Happiness) 지표를 국가이념으로 내걸었고, 그 방침을 대부분 국민들이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탄국왕이 이미 30여년전에 GNH이란 개념을 제시한 그 선견지명에는 실로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수량으로 측정되는 GDP에 대해서 도대체 GNH의 척도는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철학상의 답이 없는 큰 화두가 대두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부탄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부탄 사람들이 티베트 불교에 정신적 기반을 둔 전통적인 생활을 지켜나가고, 그와 동시에 풍요로운 자연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바귀 말하면, 부탄 국민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전통문

화나 자연과 함께 공생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부(富)를 산출하는 자본주의 네트워크에 참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지만, 부탄은 결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라고는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일 것이다. 실제로 부탄의 1인당 GDP는 1,770달러(2007년) 정도로, 세계 전체에서 122위로, 우리나라(19,730달러)뿐만 아니라 물론 미국(46,040달러) 등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한 나라임에는 틀림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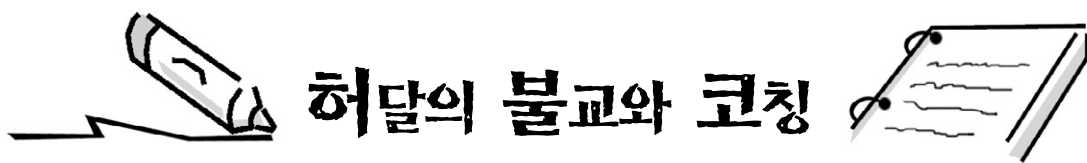
그러나 이 나라를 방문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놀란 소감이 사람들의 얼굴이 정말 '여유롭고 밝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선진국 인간의 향상'을 가지고 멋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방문자의 인터뷰 조사에서 사람들이 "지금 자기 생활에 행복하고 만족하고 있다"고 대답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중국, 인도와 접경한 부탄은 물자가 결코 풍부하지 않고, 경제의 인프라도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다. 그러나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생활을 불만 없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여유롭고 행복한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성장지상주의의 가치관에 얽매어 있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밝은 모습, 밥을 먹이고 이기적인 속셈을 차리려는 분위기를 찾지 어려운 사회적 평온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난하지만 그로 인해 정신까지 침식 당하지 않는 사회의 건전성이 빛을 발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 인종대 경제학과 교수

④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지난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안성 난실리를 다녀왔다. 교외에 나가 길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맛보자는 뜻도 있었지만, 난실리에 위치한 '조병화 문학관'에서 개최하는 친구 김광규 시인의 시 낭송회가 있다 하길래, 오랜만에 친구의 얼굴도 보고 그의 부드럽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들려주는 자작시 낭송도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김 시인과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 조병화 선생으로부터 함께 국어 작문을 배운 동기동창자이자 누하동, 적선동을 오가며 어린시절을 지낸 오랜 친구다. 뜻밖의 곳에서 예상치 않은 친구를 만나 그도 반가웠는지, "별 데를 다 다니네." 하며 씨익 웃어 보였다.

모두 여섯 편의 자작시를 낭송하고 낭송회는 끝났는데, 그날 헤어지기 아쉬워 기어코 그를 우리 집으로까지 납치하여 와인잔을 몇 잔 기울이고 돌려 보냈다. 그날 낭송한 그의 시 중 가장 마음에 남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에서 인용한다.

4.19가 나던 해 세월/ 우리는 오후 다섯 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입김 뿜으며/ 열린 토를 벌였다(중략)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베타이를 매고 다시 모였다(중략)

자기기만의 상자 속에 숨어,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에 잠시 연민하는 서글픔을 연출하다가, 삶의 높으로 되돌아 가는 '혁명'이 두려운 우리들'을 보라.

미국 아빈저연구소라는 곳에서 출간한 <리더십과 자기기만>이라는 책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기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를 외면하는 자기배반(Self-betrayal)의 순간 자기기만의 상자 속으로 들어간다. 그 상자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 뿐 아니라, 남과 주위 여건을 비난하는 논리까지 만들어 점점 더 깊이 숨어버린다는 것이다. 상자 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소용 없게 되어버린다. 스스로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일, 남을 변화시키려는 일, 새로운 기술이나 해법을 활용하는 일,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는 일, 상황을 놓아두고 선선히 물러나는 일 등이 불가능해진다.

스스로 자기기만의 상자 밖으로 나와야

코칭은 고객을 상자 속에서 나오게 작용하는 일이므로, 코치는 의당 스스로 상자 밖에 나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상자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당연한 말이지만, 먼저 자신이 상자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남을 비난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징조들이 자신에게서 발견된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이미 상자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 다음 단계는 상자 밖 장소를 찾는 일이다. 상자 밖에 있는 어떤 관계 또는 기억, 예를 들어, 자신의 마음이 풍요로웠던 상태, 왜곡되지 않았던 상태 등을 기억해 내고, 그 상태에 머물면서 주어진 상황을 상자 밖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다. 이른 바 관점의 전환(Perspective Change)이다.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내

면의 소리를 듣게 된다. 이를 망설임 없이 실행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실행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자기배반(자기기만의 무기력한 사이클)로 되돌아가게 된다.

어느 워크숍이든 시작할 때면 늘 참가자들에게 우스개 소리 삼아 하는 말이지만, 성인 교육의 문제점은 그 교육이 거의 모두 '반납교육'이라는 점이다. 워크숍 중에 받은 감동, 스스로 얻은 교훈, 결심, 행동계획 등 모든 것을 이름표와 함께 교육장에 반납하고 돌아간다는 뜻이다.

이 점에 유의해 코칭에서는 매 세션의 마무리 부분에 책무(Accountability) 부여라는 과정을 수행한다. 책무부여라고는 하지만 코치가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스스로 자신의 책무를 선택하고 실행하도록 돕는 일이다. "오늘 느낀 것을 바탕으로 하여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언제까지 시행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시행했다는 것을 코칭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등의 질문에 답을 받아 주는 것이다.

명상이라는 말은 바바나(bhavana)라는 범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며, 그 원 뜻은 '마음 밭을 갈아 일꾼다(cultivate/develop)'는 뜻이다. 마음이 만든 자기기만의 상자를 명상을 통해 벗어내고, 늘 청정한 자리에 서서 내면의 소리를 들어 준행(遵行)하는 일, 불자 코치가 원(願)을 세워 부여 받은 스스로의 책무이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승기건강비법 [마.가.목] 신비의 나무"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마가목 가지로 지팡이를 짚으면 태반이 떨어져 나오지 않고 태어난 아이도 건강하게 자란다.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아서 (1달분 60봉 두께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허리를 거르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동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에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수축을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여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도움이 됩니다 ◎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충북 청원군 북일면 초정약수 토굴암
전화번호 : 043)214-1280 데진스님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수제화 고무신코 만행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호, 발명특허 0554383호

망한용달신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특무명달신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5mm단위)
• 색상 : 회색, 검정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무즈(여)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지압감창

발명특허원 41435
• 가격 : 20,000원

지압감창

발명특허원 41435
• 가격 : 20,000원

최고의 선물

자계절단화
• 풍신동 99%
• 지압식 깔창

NAVER
인민넷쇼핑을 만행화는 검색해 보세요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 본사, 전시장 : 서울 중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중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뺀다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뺀다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 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구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압박성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풍동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축적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